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김정회 자동차조선과장, 송효정 주무관(2110-4826)		

※ 본 보도자료는 조선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(Clarkson) 및 한국조선협회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한 내용임

국내 조선산업, '12년 해양플랜트, LNG선을 중심으로 540억달러 수주목표

- '11년 수주 세계1위(48.2% 점유) 탈환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홍석우)와 한국조선협회는 국내 11개 주요조선사*가 **540억달러를 수주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수주를 추진할 계획**임을 발표함

*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현대삼호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한진중공업, STX조선해양, 신아에스비, 대선조선, 성동조선해양, SPP조선

○ 세계 조선시장에서 국내조선사가 강점이 있는 해양플랜트 및 LNG선의 발주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**'12년에도** 국내조선산업이 수주량 기준 **세계1위를 유지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□ '12년에는 유럽재정위기 전개방향 및 세계경기 회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

○ 선박공급과잉, 전세계 경기침체, 선박금융위축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'11년대비 **세계 선박발주량이 감소할 것**이라는 전망이 우세*

* Clarkson(조선시황분석기관)은 '12년에 '11년대비 약 9.7% 발주량 감소전망 ('11.9월)

- 전세계 경기회복 및 재정위기 완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더라도 선박공급과잉으로 인해 조선시황 개선에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

○ 다만, 고유가 전망 및 일본지진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증가 등으로 대규모의 해양자원개발 프로젝트*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**해양플랜트·LNG선의 지속적인 발주**가 예상

* 호주 Lchthys 가스전, 러시아 Shtokman 가스전, 나이지리아 Egina 원유전 등

□ 이에 따라, 해양플랜트·LNG선 등 고부가 선박에 우수한 기술력 및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**국내조선산업이 '12년에도** 수주량 기준 **세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**

○ '12년 국내조선사의 **해양플랜트 수주목표가 약 185억달러**에 달하는 등 해양플랜트가 국내수주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

- 특히,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 등 **대형조선3사**는 **총 수주의 50%내외가 해양플랜트**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

□ '11년 국내조선산업*은 **전세계 발주량의 48.2%(1,355만CGT**)를 수주**(Clarkson 기준)하며 **4년만에 세계1위(수주기준)**를 **탈환**하였음

* 11개 주요조선사 이외 국내 모든 조선사 포함
** CGT(Compensated Gross Tonnage) : 부가가치 환산 톤수

○ 이는 '11년 **전세계 선박발주량이** 선박공급과잉,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선박금융 위축,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**전년대비 30.5% 하락**(2,811만CGT)**한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의**

○ 국내조선산업은 전세계 발주된 **FPSO(1척, 6.8억$), LNG-FPSO(1척, 24.1억$), LNG-FSRU(4척, 10.6억$)를 전량 수주**하였으며,

* FPSO(Floating, Production, Storage, Offloading) :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, 저장, 하역설비
* FSRU(Floating, Storage, Re-gasification Unit) : 부유식 가스 저장, 재기화 설비

○ **드릴쉽의 77%***(26척, 142.2억$), **LNG선의 84%**(38척, 77.2억$), 8000TEU 이상 **대형컨테이너선의 74%**(80척, 107.6억$)를 수주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**의 세계 최강자임을 증명

* 세계시장 점유율은 CGT 기준으로 산출